조선문제는 조선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해결 되여야하며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도 허용될수 없다!

Title: Hwalssal
No. 43, June, 1954

RETURN TO
THE LIBRARY OF CONGRESS
DIVISION OF ORIENTALIA

6
Copy

0647 R
RETURN TO
THE LIBRARY OF CONGRESS
DIVISION OF ORIENTALIA
MAR 31 1955

Please return to the Korean Unit

43 1954.6

시사만화잡지 **활 살**

평화는 전쟁을 타승한다

안창수 그림

세계 긴장상태의 가일층의 완화와 구라파의 안전체계를 확립하기위하여 쏘련정부는 3월 31일부 미 영 불 정부에 보내는 각서에서 해당한 조건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참가 할데 대한 회담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표명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야 및 파란정부도 이를 지지하고 사업할 의사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 영 불 서부 3렬강은 아무 리유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북대서양동맹』의 침략성을 더욱 로골적으로 자체폭로하였다 전쟁방화자들의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전세계 평화 애호 투쟁대렬은 보다 확대강화되고있다 전쟁상인들의 흉모를 통렬히 규탄하는 목소리는 드높아가고 있으며 평화는 전쟁을 타승하고있다。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

조선의 평화적 통일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 자신의 문제이며 조선문제는 조선인민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되게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지난 4월 27일 제네바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수석 대표 남일외무상이 제출한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에 대한 방안은 전체 조선인민의 진정한 념원의 표시이며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적 방안이다 우리대표단이 제출한 방안에는 조선으로부터 일체 외국군대가철거한 기초위에서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통일된 민주주의 중앙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조선을 통한 총선거를 실시할것과 이총선거를 준비하며 남북조선간의 경제및 문화적 접근에대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위하여 공화국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가 선출한 대표들로써 전조선위원회를 조직하며 이 위원회는 남북조선의 가장 큰 민주주의적 사회단체 대표들도 포함되여야 할것과 기타 선거의 자유 분위기와 진실한 민주주의적 성격을 보장하기위한 제대책들이 명시되여있다 우리공화국 대표단이 제출한 이방안은 우리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갈망하고있는 전체조선인민의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또한 이방안은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위한 조선인민의 일치한 의사와 공화국정부의 구체적 대책을 다시 한번 전세계 인민들 앞에 천명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이방안은 쏘련대표단과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평화와 자유를 갈망하는 세계 모든 성실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조선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지 반드시 조선인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되며 조선인민의 민족적 리익을 고려하여야한다

조선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촉진시키는것은 제네바회의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제네바회의에서의 조선문제의 토의과정은 누가 조선인민의 원쑤이며 조선문제의 해결을 방해하고 있으며 누가 조선인민의 진정한 벗이며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시종일관하게 노력하고 있는가를 다시한번 똑똑히 뵈여주고있다

주지하는바와같이 위대한 쏘련은 그의 무장력으로써 우리조국을 일제통치기반하에서 해방시켜 주었을뿐만 아니라 조선인민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자기조국을통일시키며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전세계 자유애호 인민들의 대 가정속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평화적 발전을 보장 받도록 백방으로 원조와 일관한 외교적 이니샤티브를 취하였다 모쓰크바 三상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쏘련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의 고의적 태공으로 말미암아 2차에 걸친 쏘，미。공동위원회 사업은 파탄되고말았다 미국이 우리조국 남반부를 영구히 강점하려고 획책하고 있는반면에 조선인민의 민족적 자주권과 국권을 존중하는 위대한 쏘련은 1948년말까지 북조선 지역으로부터 자기군대를 완전히 철거 시켰으며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그 어느나라보다도 먼저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설정하였다

쏘련은 조선인민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어려운시기에 밀가루 5만톤을 비롯한 많은 물심량면으로되는 원조를주었으며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시기에 와서는 10억루블리 원조를 비롯하여 많은 기술적 경제적 원조를 주고있다 조선인민의 진정한 벗인 쏘련의 이니샤티브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표와 또한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에 절실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세아의 위대한 강국 중화인민공화국 대표가참가하고있는 제네바회의는 조선문제의 공정한 해결을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유리한 기회를 조성하고있다 회의 첫날부터 우리측은 성의있고 공정한 태도에서 문제해결에 참가하여왔다 지난 5월 22일 회의에서 주은래 외교부장은 전조선위원회의 조선에서의 자유선거실시에 협조를 주기위하여 조선전쟁에 참가하지않은 나라들로 중립국 감찰위원회를 조직할데 대한 또 하나의 새로운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모든선량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조종하에 움직이고있는 리승만 반동정권대표는 전체조선인민의 일치한 의사와 열렬한 지향을 무시하고 이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반대하여 나서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문제는 유·엔의 권한에는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데 유·엔기구를 비법적으로 리용하여왔다 조선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약속한 모쓰크바 三상회의 결정의실천을 고의적으로 파탄시키고 남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전변시키려는것을 정당화 하기위하여 이미 유·엔 제二차총회에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상정시켰던 것이다 이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의 대표를 참가시킴이없이 미제의 강압으로 소위「유·엔 조선위원단」을 구성하고 남조선에서만「유·엔 조선위원단」의 감시하에 남조선에서 초보적인 인권의 자유 마저 억압하고 삼엄한 경시테세를 취한 조건하에서 비 민주주의적이며 강압적인 소위 5, 10 단선을 날조하였다

미국대표 덜레스와 리승만 괴뢰정부 대표 변영태는 우리측의 정당한 평화적 조국통일방안을 전적으로 거부하면서 남북을통한 자유선거를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소위 유·엔 과 남조선정부의 감시하에 북조선에서만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어디까지나 평화를 두려워하며 리승만의 경찰테로정책을 북조선에까지 확대하며 미국침략군을 조선령역에 무기한 주둔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오는 덜레스와 변영태의 제안은 미국의 강압에 의하여 몇개 서방국가대표만에 의하여 지지되였다

위력있는 세계여론은 서방측의 파괴적 태도의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미국측이 만일 제네바회의를 파탄시킨다면 준엄한 사회여론의 심판을 면치못할것이다 『협의립장에선 정책』을 계속 실시하려는것을 실증한다 조선지역으로 부터 자기군대를 철거시킨다면 그의 총검의 지시하에서만 가련한 여명을 유지하고있는 반인민적 리승만 괴뢰정권이 단 하루도 존속될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미제와 그의 조종하에 있는 리승만정권대표 변영태는 제네바 회의에서 미군의 장기 주둔을 합법화 하기위한 구실을 찾기위하여 갖은 궤변을 부리고있다 조선인민은 지난 9년간의 실재 경험을 통하여 오직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인민정권만이 자기들의 진정한 리익의 대표자로 될수 있으며 인민에게 자유와 행복을 줄수있다는것을 똑똑히 알고있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이이상 더 조국이 분렬된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며 하루속히 경제적 정치적으로 통일된 국가에서 살기를 열망하고있다 조선인민은 하나이다 조선은 언제나 조선인민의 것이며 또 영원히 그렇게될것이다 조선문제는 반드시 조선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해결되여야하며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도 허용될수없다 협의방법에 의하여 해결못할 그러한 난문제나 분쟁문제는 없다는 견지에 확고히서있는 위대한 쏘련을 위시한 민주진영국가들이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하여 표시하고있는 시종일관한 노력은 반드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것이다

(한 춘)

그날 책임량은 그날로 완수하자

김명덕은 평양시 건축 공사의 토전 로동자로 일 하고있다 그는 정전과 함께 군대에서 제대 되자 곧 현재의 공사장에 배치 된 것이다

그는 공사장에서 다시 새로운 작업 태세를 가추었다

그가 하는 일은 벽돌을 쌓는 일이였다 명덕이는 군대에 들어가기전 부터 토전 로동자이였으며 그의 아버지 역시 오랜 건축 일을 한 것이다

군대에서 제대되자 토전 일을 지원한 그에게있어서 현재 그가 배치된 이 공사장이 무엇보담도 만족 하게 생각되였던 것이다

그의 가슴에는 두개의 전사 영예훈장과 세개의 메달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적과 맞다들면 언제나 날래고 용감 하였다 불시에 명령이 내리면 며칠 걸리는 진지 구축작업도 극히 짧은 시간내에 끝내는 때도 많었으며 습격전에서는 지뢰를 헤치기 위하여 폭약을 안고 부대의 앞장 선것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는 끝끝내 용감하고 날랜 용사 이 였다

그는 전쟁에 의하여 귀중한 많은 것들이 파괴된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 하였으며 그 만큼 또한 적을 미워하였다 명덕이는 정의의 전쟁에서 인민들이 반드시 승리하고 다시 공사장에 돌아가 로동복을 입을 것이며 그곳에서 적의 만행에 의하여 파괴된 건물들을 보다 웅장하고 아름답게 다시 건설 하는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으며 우람찬 공장과 고층 건물이 즐비한 도시들을 상상 하는 때가 한 두번이 아니였다

그는 조선 인민군의 한사람으로서의 높은 영예와 함께 항상 건설 일군 으로서의 자랑과 책임을 잊지 않었던 것이다

조국해방 전쟁은 조선 인민의 력사적 승리로 종결되였으며 조국과 전체 인민들 앞에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을 위한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한 거대한 과업들이 제기 된 것이다

새로운 투쟁은 시작 되었다 명덕은 몸에 더욱 힘이 돌아 남을 느꼈다

그는 현 공사장에 배치 되자 곧 고향에 편지를 하여 순실을 불렀다

순실은 그가 전쟁에 나가기전에 약혼을 한 처녀이며 지금은 마을에서 민청 모범 맹원으로 농촌 로력 녀성으로 마을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고 있다

명덕은 순실에게 감사한 생각을 어찌 할 수 없었다 순실은 오늘 까지 변함이 없이 전선의 그를 항상 목려하여 주었으며 또한 그가 다시 토전 로동자로서 평양시의 재건에 참가한 것을 무엇보담도 영광스럽게 생각 한다고 하였다

백인균 그림

조국의 무한한 륭성을 위해 원쑤를 물리친 그 기세로 오늘도 책임량을 초과 완수하리라!

명덕은 매일 벽돌 쌓기에서 140%이상의 성과를 걷우었다

「순실이가 온다면…」

평양시의 재건 공사는 전면적으로 전개 되여 쓰딸린 거리 공사를 8·15전 까지 완수 하기 위하여 수많은 인민들이 동원 되고 있었다 대동강 철교도 이제는 전쟁중의 상처를 씻고 새로운 보수 공사가 진척 되고 있었다 건설을 위한 힘찬 노래 소리와 함께 거리에는 공사에 동원된 트럭이 분주히 오고 가고 한다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이 끝나면—

그것은 그에게는 생각만 해도 황홀한 일이며 또한 힘이 저절로 솟는 일이기도 하였다

그 때엔 쓰딸린 거리 그리고 이 넓은 거리를 가운데 두고 무수한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 김일성 광장을 비롯한 많은 광장에는 분수가 오색 무지개를 그려낼 것이며 프라타나스 수양버들등 무성한 나무 그늘에는 많은 시민들이 행복에 넘치는 얼굴로 그곳에 오고 가고 할 것이며 극장도 수 많이 들어설 것이 아닌가!

그리고 5·1절 8·15 이면 5색 가지 깃발과 프랑카드의 물결 사이로 넓은 광장에서 만세를 부르며 경애하는 우리 수령을 모실 것이 아닌가!

그는 더욱 힘을 내여 벽돌을 들고 바르게 흙손을 움직이는 것이였다

어느날 아침 순실이 온다는 전보를 받었다

명덕은 공사 책임자의 허가를 얻은후 그 시간이 오자 날개가 돋친것 같은 생각으로 평양역으로 나갔다

틀림 없이 순실이는 그 시간에 도착하였다

『순실이』명덕은 저도 모르게 홈에서 순실을 덥석 안았다 아롱민 전쟁이후 처음이였던 것이다 순실은 언제나 다름 없는 순직한 처녀이였다

명덕이는 순실이를 데리고 그의 숙사로 돌아왔다

그날밤이다

『이전 명덕 동무가 쓰던 흙 손이고…』

순실은 짐을 풀자 다른 물건들과 함께 명덕의 흙손을 내여 놓았다

『오——』

그 순간 명덕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것은 이제까지 가졌던 그 흙손에 대한 애착 보다도 순실의 정성이 그의 마음을 울린 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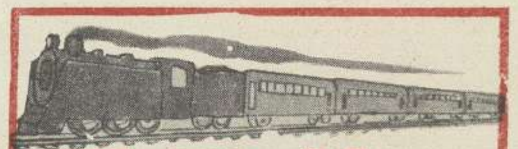
더욱 흥성하여가는 국영 상점들!

어머니! 이렇게 좋은천을 맘대로 싸게사니 얼마나 좋습니까? 원광수 그림
참! 이게다 우리 수령님의 덕분이지!

행복한 꽃 봉오리들!

원광수 그림

새로 지은 우리학교 참 좋아
우리는 공부 잘하여 나라의 훌륭한 일군이 되자



기관차

기관차는 재생 된다! 적기의 폭격에 의하여 입은 상처를 회복하고-—

나는 서평양철도공장에 찾아 갔다 구내에 들어서자 위선 공장 주위를 한바퀴 빙 돌아본 다음 기관차 직장에 발을 들어 놓았다

단조함마의 내리치는 소리는 우렁차고 전기용접의 불꽃은 섬광처럼 구석 구석을 비친다 크레잉이 움직이고 용해로에서 쇳물이 흐른다.

지금 „데호유 33호"가 방금 재생 되어 가는 중이다 내화실이 전부 깨여지고 증기통이며 파이프며 차륜과 비스통도 없는 뼈만 남은 기관차이다 씨린다는 부서지고 물땅크는 구멍이 뚫어졌다 그저 엉성한 쇠무치가 서고 있을뿐이다

그러나 지금 이 „데호유 33호"의 상처는시간마다 말끔히 가셔 진다 복구건설의 불꽃은 튀고 굴뚝의 연기는 뭉게 뭉게피여 오른다

三개년인민경제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보람찬 투쟁을 전개하는 종업원들의 속에서 기관차는 재생되어 간다 벌써 지난 1·4분기에 13대나 완전히재생되어 기관차는 벅찬 감격을 싣고 첫 기적을 높이울렸다

전쟁 기간중 이 공장은 다른지방에 소개하여 작업하다가 바로 얼마전에 돌아왔다

지금 전체 종업원들은 3개년 인민 경제계획을 초과완수 하기 위하여 비등된 열의로써 저마다 로력의 고귀한 창조적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4월에도 기관차 복구수리 계획을250%로 초과실행하였으며 기관차 5 대를 출장 시켰다

그들은 직장 종업원 대회를 열고 계획달성을위한 결의를 굳게 다진후 치밀한계획밑에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함과 아울러 그날 계획을 그날에 완수하는 엄격한 제도를 확립하고 완강한 로력 투쟁을 전개하였다

기호별로 세분공정표를 작성 하고 각자 자기의 책임량을 달성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만일 이 공정표 대로 일이 진척 되지않았을때에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시정대책을 강력히 강구 실천 하였다

제관부 최윤현 동무는 내연관을 조이는 작업에서 4월 계획을 270% 달성하였으며 김회순 김택규 동무는 하루에 50대를 조이던것을 80대식 조였다 또한 선반공 류상협동무는 차륜 삭경에 있어서 차륜을 자동식으로 끌어오는 기계를 선반기에 장치하여 200%의 생산능률을 제고 했다

생산능률은 나날이 높아 갔으며 창의고안도 종업원들 사이에서 아름답게 꽃이 핀다

객화차직장 상조공 최근선 동무는 로력의 절약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사꾸리 간나방„ 이 없는 조건에서 객화차 수리생산에 많은 시간이 들던것을 지난 2월15일 새로운 „제작기구" 를 창안하여 종전에 객화차의 의자를 깎는데 20분이 걸리던것을 단1분에 깎을수 있게 되였으며 결과 국가에 1개월동안에 32만원의 리익을 주었다

× × ×

공장 한가운데 떡 버치고 선 기관차 „데호유 33호" 는 시간에 따라 자기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기관차 앞에 다아가 두 손으로 새로 보수한 기관차의 씨린다를 만져 보았다

광활한 조국!
이르는 곳 마다 동맥으로
항시 거세차게 달리던
기관차!

모진 폭격에 아픈 상처를 받고
바퀴가 떨어지고 비스통이 불려졌으나
이제 너 기관차!
깨여진 상처 회복 하고
멎었던 심장이 다시 뛰어

조국의 륭성과 행복의 터전을 닦는
3개년 인민경제 계획!
불꽃 튀는 이 나라 산과 들을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힘차게 달리라!

종업원들은 기관차에 올라서서 일한다

그들의 구리빛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두 눈동자는 날카롭게 빛난다

내화실 철판과 대연관을 조립하는 동무! 비스통을 마추느라고 억센 팔뚝으로 함마를 휘 둘르는 동무! 그리고 증기통에 올라 서서 용접의 섬광을 뿜는 동무! 실로 불꽃 튀는 투쟁속에서 기관차는 재생 되여 간다!

나는 기관차 "데호유 33호" 가 멀지않아 양컨 씨린다에서 하이얀 증기를 뿜으며 출장의 기적을 높이 울리며 거세차게 달릴 것을 생각하며 돌아왔다

1954, 6, 10, 리 송 원

더욱 아름다운 민주수도로!

민주수도 평양시를 더욱 아름답고 현대적인 도시로 복구건설 하기위하여 애국적 열의에 충만된 인민들은 지금 쓰딸린 대통로 복구확장 공사장 기타 각 복구 건설 공사장에 매일 수만명이 자진 동원하여 공사를 성과있게 추진 시키고 있다 8.15전 까지는 쓰딸린 대통로와 중앙광장 역전거리 서평양광장 및 모란봉 회의실이 완성될것이며 종합청사 국제호텔 로동자 아빠트등 대 건물들의 벽 돌 축조공사가 2층내지 6층까지 진척 될것이다

최한진 그림

미제공중 비적들의 야만적 폭격에 의하여 무참히 파괴된 우리 나라의 고귀한 문화 유물들의 수축 공사는 지금 공화국 각지에서 광범히 전개 되고 있다 민주수도 평양시 에서만도 이미 4월 30일까지 을밀대와 승인전이 유구한 옛 모습 그대로 완성되였으며 현재 련광정 오순정 보통문의 수축공사도 성과있게 진행되고 있다

민족문화 유물은 보수된다

— 아저씨! 련광정 보수 사업에 수고합니다
— 우리 조상들이 만든 훌륭한 문화유물을 길이 보존 해야지 —

최영근 그림

룡천군 인민위원회 지도일군들은 5월 한탈을 책상 머리에서 어물 어물 지내다가 다른군 농민들의 활기띤 모내기 소식이련달아 들어온 다음에야 『동분서주』하였다 보슬비 나리던날 농민들이 논벌을 분주히 찾아 다닐때 일부지도 일군들은 『낮잠자기 좋은날씨』라고 합숙에서 잠자고 있었다

모내기 지도사업에서 무책임성을 퇴치하라

—이크…반복리 구암부락… 6월 4일 까지 모내기를 끝냈다…… 또 70여명 농민들이 린접한 서흥부락의 모내기를 협조했어…야 큰일났군 우리 룡천군은 이제야 겨우 …7.2%…

평남 문덕군 인민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군내 각리의 토질 기후 및 작물의 성숙 정도가 거이 동일하다 하여 앉아서 현물세를 사정하였다 올해에는 이와같은 결함을 다시 반복하지 말고 정확하게 현물세 판정을 할것이다

현물세 판정 사업에서

관정위원 동무 올해에는 작년도 모양으로 판정하지 맙시다

억제되는 증산경쟁의 두가지 경향

김보경동무가 지도하는 광산에서

아침에 늦게 출근하였으니 퇴근 이라도 남보다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직맹 초급단체 위원장 박웅섭 동무는 오후 4시경이 되면 초급단체 일군들에게 『나는 먼저가오! 수고들하시요!』라고 각별한 인사끝에 번들거리는 가방을 들고 자기집으로 사라지곤 한다。

오늘도 11시경이나되여 박웅섭동무는 누가 무어라고 하건간에 으석 으석 초급단체 사무실로나왔다

그는 자기방으로 드러가서 우선 담배를 한대 피워문 다음 오늘은 무엇을 할것인가하고 생각하면서 거름발 련습을 한참이나하였다

그러던중 문턱 증산경쟁 조직을 개편하여 한번 멋쩌게 성과를 올려보겠다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그렇지 지금까지 전개한 증산경쟁 운동의 목표는 낡은 생산기준량이 였어』이렇게 혼자말로 중얼거리며 그는 푹신한 회전의자에 주저 앉었다

그는 불버락이 나서 무슨 글인가 쓰기에 바빴다

쓰다가는 찢어버리고 또다시 쓰고 몇번 고쳐써서 명문을 만드러냈다

글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산경쟁의 낡은 생산기준량을 일소하고 새롭고 효과적인 경쟁을체결할데대한 세미날을 조직할테니 즉시 로동부일군들과 직맹반장들은 초급단체 위원장실로 노―트를 지참하고 집합할것―위원장 박웅섭』이라고 써워진 회람장이다

회람장은 로동부를 비롯하여 각 직맹반에 시달되였고 회의는 생각대로 소집되였다

회의에서는 위원장의 창안이 핵설되기 시작하였다

『동무들! 우리가 아직까지 증산경쟁이니 무어니하고 떠드러 왔대야 그것이 모다 낡고 고식적인 방법입니다 때문에 새롭고 효과적인 증산경쟁운동으로 조직개편해야 하겠습니다』라고 침잖게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지시하였다

첫째 증산목표는 아직까지의 낡은 기준량을 일소하고 로력영웅 림동규동무의 로력 기준량과 꼭같은일일6톤4백으로 전광산 로동자들의 증산목표를 통일시켜 설정할것

둘째 로동부일군들은 쓸데없이 증산의무 설정을 거더치우고 종업원명단을 필사한후 개개인의 명단아래 증산책임량을 6톤 4백 이라고 명기한 서류를만들것

셋째 각직맹 반장들은 개인맹세 법을 없애고 직맹위원장의 지시로 증산목표는 매개인당 6톤 4백으로되였다고 주지 시킬것—

이상과 같이 엄격한 지시를 내리였다

사업은 로동부 일군들이 총동원되여 곧 집행되었다

위원장 책상에는 로동부로부터 발취한 로동자들의 명단과 그밑에 증산목표 매개인당 6톤4백이라고 명기한 서류가드러왔다

개편된 증산목표만보고 그윽히 만족한 위원장 박웅섭동무는 흡족한 얼굴로—매개인의 증산목표를 6톤4백으로 정한 서류가 완비되였으니-----

로동자들은 로력영웅 림동규동무와같은 생산을 내게될것이고 래일부터는 광석이 막 쏟아나오겠지 하고 앉어있다

체신 제2호 공장에서

체신제2호공장 기사장모영칠동무는 그윽히 만족한 얼굴로 현장 로동자들의 투쟁을 바라 보고있다。

기술부장 김승진동무도 자기사업 성과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우리공장에서는 증산경쟁이 필요없어 증산경쟁을 조직하지 않어도 계법계획을 다하고있거던!』

이렇게 기사장과 기술부장은 말을주고 받고있었다

이내였다 제4계호 유금자동무가 기사장을 방문하였다

『기사장동무 우리제호에서 증산경쟁을 호소하겠는데 책입량을 145%로하고 로동생산성을 35% 제고할것을 제기하겠습니다』

유금자동무는 의기양양하여 자신있게 제기하고나선다

기사장 모영칠동무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한참이나 대답이 없이 서있다가 겨우하는말이

『쓸데없는 소리그마두오 국가과제를 100%달성했으면 되는것이지 동무는 무슨 보족한 재간을가졌고 145%식하게되면 작업조건은 어떻게 보장하란말이요』

툭명스러운 기사장의말에 유금자동무는 서운한감을 금치 못하였다。

『그럼 증산경쟁은?』

『증산경쟁은 무슨 증산경쟁 거어코 증산경쟁이 하고 싶거던 국가지표를 100%수행하는 방향에서 적당히 조절하여 목표를 세우시요 동무들이 국가과제를 100% 이상 넘쳐해 보겠다고 하면 거게대한작업 조건은 지어줄수없으니 그르지들 말라구하오』기사장은 이렇게 말을 끊고 담배를 피우기시작했다

옆에 있던 기술부장 김승진동무도 맞장구를치며나선다

『금자동무! 많이 하겠다고 했다가 못하면 창피한일이 아니요! 그러니 100%이면 그만이고 또 목표는 작으만이 세우고 실천은 초과하면 일하기도 쉽고 다른 공장과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조건이 되지않겠소』

금자동무는 하는수없이 문을열고 밖으로나왔다

그러나 증산의욕에 앙양된 로동자들은 경쟁목표를 145%를 세웠다

이소식이 기사장 모영칠동무에게 전해지자 황겁히 제호 책임자들과 브리가다 책임자들을 기사장실로 모았다

『동무들! 동무들의 증산의욕은 좋소 그러나 작업조건을 지어주지 못하겠으니 동무들이 세운 목표에서 45%를 삭제하고100%로 정하시요 그래놓고 작업을 해보면서 더합시다 목표를 세워놓고 못하면 못한것으로 되는것이고 목표를 적게세워 더하면 초과한것으로 됩니다』

이상의 『엄격』한 지시가 내려였고 로동자들의 앙양된 증산의욕을 억제해가면서 경쟁목표를 100% 내에국한 시켜세우게하였다

(지 철)

성진 제강소 로동부 일부 일군들은 제관 직장 연공반에서 제출된 3종의 도급체결문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작업현장에서의 세밀한 관찰과 측정을 하지않고 앉아서 평균식으로 도급공수를 삭감하였다 그나마 공사가 끝나고 3일이 경과된 후에 현장에 나왔기 때문에 로동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는데 아무런자극도주지 못하였다

덮어놓고 열닷냥 금으로 도급사정을 하는일군

—동무! 도급사정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알기나 하우! 공사가 끝난 후에야 현장에 나와서무엇 하오? 동무는 한심한 판료 주의자요!

손쉬운 방법

선천군과 구성군 삼림 사업소에서는 림목처분을 함에 었어서 실측 조사를 하지않고 목측과 도면에 의하여 손쉽게 처리하여 귀중한 삼림 자원을 랑비 시키고 있다

무사태평한 일꾼들

교통성 산하 평양 자동차 수리공장 지배인 차병길동무는 각 작업장들에서 들려오는 각종 기계 소리에지웅히 흡족한 표정을 짓고 앉어있다

바로 이때 기사장 김려보 동무가 1.4분기 자동차 수리 실적 통계를 가지고 들어왔다

『대수리 51.7% 중수리 72% 소수리는 179%고 도합 100.9%라! 이만하면 괜찮소 기사장 동무!』지배인 차병길 동무는 통계보고를 죽 훑어보며 말했다

구분된 수리실적은 매우 불균형적이지만 그래도 종합적 계획 숫자가 겨우 달성된것은 지배인에게 안도감을 주었던 것이다

『지배인 동무! 생산액 지표로는 62.7%바께 안됩니다』

『아 그거야 문제도 아니요 2.4분기에 대수리를 많이하면 생산액은 저절로 증가 될게고…』지배인은 수리만 많이 한다면 금액상지표는 문제도 없다는 것이다

말없이 앉어있는 기사장에게 동의를 구하려고애를 쓴다 지배인 차병길 동무는 2.4분기 「생산실적」을 한번 멋지게 올려볼 심산으로 공무부장에게 특별지시를 주어 각 공정별 작업장에서 3인조 분업반을 조직하였다

2.4분기에 돌입하자 자동차 수리 주문은 매일 꼬리를 물고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공무부장 김현도 동무는 아주 신이나서 각종 차들의 수리주문을 막 받아들인다

작업지시표는 각 현장에로 련방 날려가고 작업장들은 새로운 활기를 띄였다 재생직장에서는 선반기들과 정밀련마기들이 우렁차게 돌아간다 용접공들은 땀을 흘리면서 까스용접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몇일이 지나서 아무 고장도 없는 2호 선반기와 4호 선반기가 작업을 정지하였고 다른 작업장 분조들에서도 작업을 중단하였다 용접공들도 가끔 일손을멈춘다

그것은 공무부일군들이 현장실정을 모르고 들어앉어서 작업지시를 제때에 주지못한 때문이다。

로동자들은 공무부로 달려갔다

『부장동무 작업지시를 주십시요 지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곧 내보낼 터이니 나가서 기다리오』

『부장동무! 산소와 용접봉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산소는 래일이면 들어올게고 용접봉은 아무데서나 철사를 좀 주어서 쓰면 되지않소?』공무부장은 대답하기에 숨이 가쁠 지경이다

현장에는 화물차 승용차 할것없이 7—80대의 자동차가 수리하기위하여 처음 갖다둔 그 자리에서 움직일줄을 모른다 차 수리를 맡긴 기관 일군들이 이곳 공무부에로 밀려든다

『아니 부장동무! 3월 25일까지 수리된다면 차가 4월 금음이 지나도록 깟닥하지않오니 대관절 어찌된 영문입니까?』그들은 저마다 수리독촉을 빗발치듯 한다

『미안합니다 부속품들을 받지못하고 용접공이 부족해서 미처 손이 돌아가질않습니다 좀더 참아 주시면 좋겠습니다』공무부장은 수리 기한연기 약속으로 매일 머리가 깨여질 지경이다

× ×

5월초에 지배인실에서 열린 『로력조직과 작업 조건 대책』에 대한 간부 회의에서 작업이 중단되는 원인과 수리할 차들이 밀리는 원인에 대하여 이 공장 지배인 차병길동무의 결론은 이러하다

첫째로…용접기능공이 부족 하다는것과

둘째로…자재 부속품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인은 여기에 있는것이 아니라 지배인을 비롯한 이 공장 간부들이 현장 지도사업을 유람식으로 등한히 하는데로부터 작업지시를 구체적인 계획밑에 실정에 알맞게 주지못하고 닥치는대로 주먹치기로 작업지시를 주는데 있으며 부족한 기능과 자재및 부속품을 제때에 확보할 대책을 수립하지않고 "누어서 배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무사태평한 사업작풍에 있는것이다

(석 광 봉)

영광스러운 우리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최한진 그림

번영과 행복! 승리와 영광에 찬 3개년 계획의 전망은 우리의 민주기지를 철옹성 같이 강화한다

우리는 승리하였다

최한진 그림

최영근 그림

— 우리의 건설은 눈부시게 발전되여가오! 그럼! 쏘련을 비롯한 중국 그리고 각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저렇게 원호물자가 많이 드려오고 우리들도 열성껏 일하는데안될리없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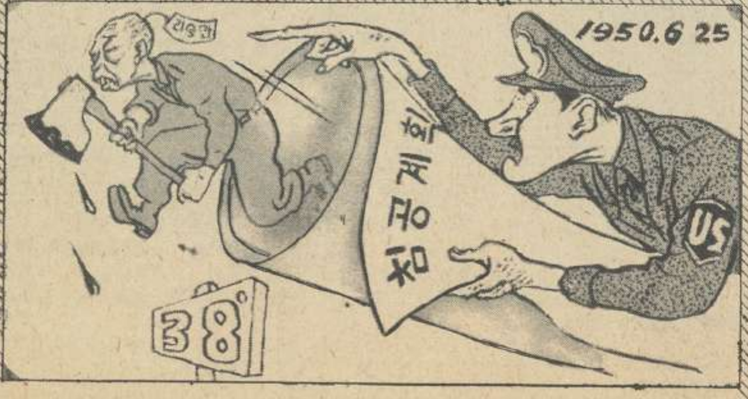
안창수 그림

일떠서는 공장! 대해마냥 전망은 넓어! 오늘도 책임량 완수하리라!

안창수 그림

— 낡은 경종 방법을 퇴치하고 선진 영농 기술인 랭상모로 지난해 보다 빨리 모를 심으게 되였어요

박승히 그림



—리승만 각하! 오래전부터 계획하던 「북벌」 합시다 3·8선침공하시오!

— 우리 행복위해 유·엔군 싸웁시다 우리 대포는 당신들 아니면 쏠수 없습니다

아이쿠 대포가 깨여 지고 허리가 부러졌으니……
정전 협정에 조인 하겠습니다……

— 리승만 또 전쟁을 합시다
「북진」 「북진」 하시오

돈사에서 소집된 긴급회의

— 여러분 우리집이 이렇게 비좁고 더러워서 모두다 병에 걸려 죽고 말겠소

— 그러니 항의문을 관리자에게 보내기로 합시다

— 좋소……좋소

최영근 그림

제멋대로 된 생각

-이런것도 다 좋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것이 그렇게 바쁘지않소 농기구가 우선 필요하오

깨여진 독에 물퍼붓기

리영춘 그림

— 동무 왜 석탄을 그렇게 적게 실고오!

— 그런수 바께… 운반 도중에 다새여 버리니 그렇지!

냄새만 맡으면 되지

평양곡산공장 지배인실 문은 활짝 열리였다。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과자 굽는 냄새는 풍겨왔다

『문만 열어 놓으면 과자 먹는 맛이 거던……』

『맛도 맛이지만 그 냄새가 곧 우리들의 생산실적을 말한단 말이거던…이제 제분기 설치만 하면 밀가루가 쭉쭉 쏟아져 나올것이고 과자는 더욱 많이 생산될거요!』

지배인은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 덕분에 과자 냄새만 들어키며 만족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그렇지요 제분기만 설치되면 2.4분기에는 생산실적이 쑥쑥 올라갈것입니다』

『좌우간 제분기 설치공사를 빨리 추진 합시다』

『네! 틀림없이 빨리할수 있습니다』

계획부장은 지배인의 말에 장단을 마추어 가며 대답한다。

지배인은 닥쳐오는 2.4분기 생산계획을 초과해야겠다는 생각만하고 설계도 없이 그냥아 제분기에 대하여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일군을 배치하였고 또한 기한 마저 단축시켜 주먹치기로「강력히」내몰았다。

그러나 제분기 설치문제는 그리 손 쉬운 것이 아니였다。

제분기 설치를 책임진 설계부 김치우동무는 초조한 마음으로 지배인실로 찾아갔다。

『지배인동무! 워낙 제분기에 대하여 잘 모르는데다가 설계까지 없으니… 그리고 18일 까지는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설계일군이 그까짓걸 가지고 뭘 그리우 설계가 무슨 필요 있소 눈 짐작이면 저울이지… 빨리 추진하시우』

지배인의 말은 간단 했다

계획부장도 한목 끼워 말한다

『10일 동안에 못하면 어떻게 하우? 4월1일 부터는 밀가루가 쭉 쭉 쏟아져 나와야 하겠는데 제분기 설치에 3부교대로 해서 3월 18일까지 완료하시요』

김치우동무는 할수없이 지배인실을 나왔다

설계도 없는 제분기 설치는 지배인의 「강한집행」에 의해 추진 되였다。

드디여 불완전하게 조립된 기계는 요란 스럽게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하로가 가고 이틀이 지나도 기계 소리만 요란할뿐이고 밀가루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소 잃고 외양깐 고친다는 격으로 이때에와서 황급하게 이 공장 간부들이 동분서주 하였으나 이미 불완전하게 설치된 기계는 다시 고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고 결과 4월 밀가루 생산실적은 47.2%바께 올리지 못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제과실에서는 밀가루가 없어서 일손을 멈추다시피 되였다。

『밀가루가 이렇게 적게 나와서야 과자 생산을 어떻게 보장하오?』

『설계도 없이 번개불에 콩 구어 내듯 한일이 제대로 될거 뭐요…』

하고 로동자들은 말한다 지배인과 계획부장은 그래도

『처음이 되서 그렇지 좀 돌아가면 밀가루가 막 쏟아질거요 기계를 돌리시요!』

하며 창문을 활짝 제끼고 사무실에 앉아 돌아가는 기계소리와 풍겨오는 과자 굽는 냄새에만 도취하고 있다。

병에 걸린 기계가 제아무리 요란스러히 돌아가도 밀가루가 제대로 나오기 만무하다。

(장 필 순)

책상속에 가치운 명령서

평양시 건설위원회 계획부장 김찬익은 상부 명령서를 팔아 버리기를 좋아한다

그는 지난 1월4일부로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 명령서 제2호를 받았다

역시 김찬익은 이 지시문도 잡다한 서류와 함께 책상 설합 속에 넣은 채 잠재우며 다시는 들어다 보지 않았다

평양시 건축트레스트 제2사업소에 제시된 금년 1.4분기 공사과제는 45종이나 되였다。 그러나 시 건설위원회로 부터 시달된 설계서는 겨우 3종바께 되지 않는다

설계서가 없이는 건축규정에 의한 자금도 받을수 없고 자재도 배당 받을수 없다。

그리하여 이 사업소에서는 200명이나 되는 로동자들이 애당초 이 사업소의 계획에 없는 새끼꼬기를 하며 1.4분기를 보냈다。

2.4분기에 들어선 오늘에 와서도 746명이나 되는 로동자들이 역시 부득히 지붕없는 집을 세우고 있다

트레스트 기사장 리찬영동무는 너무도 안타까워 수차에 걸쳐 시 건설위원회 계획부장을 찾아갔다

『부장동무! 설계서가 시달되지않아 로동자들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러나 계획부장 김찬익은

『설계과제가 국가건설위원회로 부터 시달되지 않는걸……』

하고 간단히 대답한다

『그래도 무슨 대책을 취해 줘야하지 않습니까? 복구건설이 바쁜 이때 이렇게 하여서는…』

『낸들 어떻게 하겠소 문제는 간단하지않소 국가건설위원회로 부터 설계과제가 내려올때까지 기다릴수 바께……』

김찬익은 계속 무책임하게 말한다

어느날 국가건설위원회로부터 지도검열 온 동무는 물었다

『트레스트에서 모다 설계서가 없어 일을 못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야 국가건설위원회에서 설계과제를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요…』

『계획부장동무! 국가 건설위원회 위원장 명령 제2호를 받으시였지요?』『……』

『2호 명령서를 다시 읽어 봅시다』

계획부장 김찬익는 잡다한 서류와 함께 책상 설합속에서 잠자고 있는『명령서 제2호』를 겨우 찾아냈다

—설계과제를 내려 보내지 않더래도 시 건설위원회는 설계서를 작성하여 자산하 트레스트에 시달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보장할것……—

김찬익는 손이 떨렸다

그러나 어찌하랴! 산하 트레스트에서는 설계서가 내려오지 않아 로동자들이 일이 없어 놀고 있으며 한사람이 하여도 넉넉한 일을 세사람식 심지어는 다섯사람이 붙어서 시간만 보내는 현상이 지난 1.4분기부터 오늘까지 그냥 계속 되였으니……。

(장 경 환)

알리는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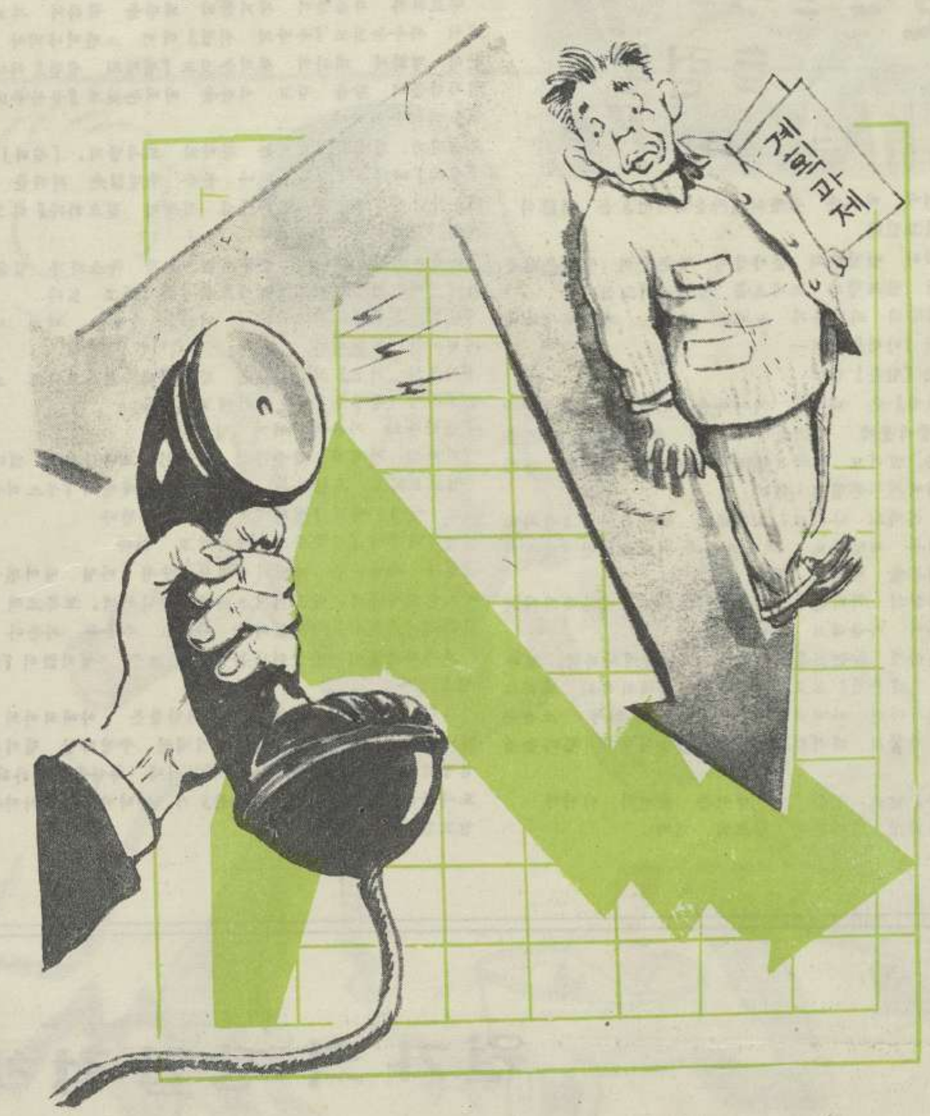
독자들의 광범한 의견을 접수하며 본지에 독자들의 투고를 광범히 게재하오니 많은 기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ㄱ. 정치 시사 만화 (글) ㄱ. 펠 레 톤
ㄴ 련속 만화 ㄴ. 풍 자 문
ㄷ. 풍 자 시
ㄹ. 독자의 편지

☆ 원고 마감 매월 15일。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서는 해당한 원고료와 게재된 활잘을 송부합니다。(편 집 부)

중공업성 산하 황명성 동무가 사업하는 기업소에서는 계획 과제를 일별로 실행하며 품종별로 달성할 대신에 「돌격식」생산을 진행하여 금액상 계획 실행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소의 생산과 건설에 까지 지장을 주고 있다

황명성 동무! 전화를 받으시요



— 또 전화로군…계획과제를 품종별로 달성 못했으니 책임

— 추궁을 어떻게 면한담……

"들러리냐" "신랑이냐"

탁송하는 화물들이 오송 오인도 되여 분실 파손되는 사실들이 허다하다즉 함흥역에서 상차되여 평양 조차장으로 수송되는 건축용 자재가 수송도중에 원목으로 품명이 변경되고 다시 사과통으로 변경되여 신의주까지 수송된 사실이 있다

장진광 그림

— 아이쿠 이거뭐야?…사과가 아니라 건축용 자재로군……

— 철도일군들이 내이름을 사과라고 제멋 대로 바꿔달아 놓아 갈데로 못갔다오

뉴욕항 문어구 하드손 강반의『자유의녀신』은 맥없이 두팔을 벌리고있다

환락의 거리 만핫탄의 불야성이 한돈중의 침략을받을 불안도 없이 실크햍과 드레스를 범람시키고있다

인디안 학살의 피바다가 스며든 테사스 평원에『박애의사도』들의『아멘』소리—

아메리카는『안온』하다

『자유의 녀신』은 대리석 치마폭을 뒤집을, 제찬 메29비행의 폭풍때문에 벌거숭이가 될 공포감으로 가슴조이는 일은 있어도 이국(異國) 비행기의 날개는 단한번도 머리위에서 본일이 없다

만핫탄의 카지노 나이트 크럽에서 아메리카의『신사숙녀』들이 원통 제멋대로 떠버려도 어느때한번『공격의 비보』로 취흥을 깨친일 없다

원주민 학살의 피비린내 나는 터전위에서『아메리카의 자비』에대하여 마음대로 지껴버대도—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것을 존재한다고 아메리카의 쁘라그마찌즘은 ㅡ『웅변』으로 론증한다 아메리카의 쁘라그마찌즘에 의한다면 아메리카의 리익을 위하여 소용되는것이라면 아뭏게 해서라도 당장 만들어내야 한다는것이다

허위, 중상, 날조, 등등 그무엇이든 문제가 아니다

필요한것이라면 얼마든지 날조해 낸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들의 해방을 위하여 적도부근에서 싸우는것도『북방의 위협』이며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평화에 대하여 웨치는것도『전쟁의 선언』이며 조선사람들이 밭을 갈고 석탄을 캐내는것도『공산주의 위협』이라는것이다

모름지기 황마의 도시는 황마의 도시답게,「진리」이니「선의」이니,「평화」이니 등등 부질없은 피리를 불것이 아니라『황금을 위하여선 전쟁이 필요하다』라고 출적한 깽가리를 울려라!

아메리카식 통치에 복무하는 온갖 목소리가 입을 모아『방위 전쟁 방위 전쟁』을 웨쳐대고 있다

『나의 돈주머니를 위하여 너의 생명을 내게 다오』파렴치한 속통이다

『자유의 녀신』의 얼굴은 창백한데 월스트리트 트럼본은「전쟁 광상곡」을 불어대고 있다

『만핫탄의 자유가 위기 일발이다』

『기도의 정적과 찬송가의 락원이 모독당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트럼본은 이렇게 웨쳐대면서『성스러운 +자군 원정』에로『전체국민』을 추동한다

아메리카식「애국주의」장하기도 하다

월가 사람들은 아메리카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조선에, 인도지나에, 아프카니스탄에, 튜니쓰에, 모록코에 아메리카의『방위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을 외운다

월가사람들이 만들어내는것은 모두 영락없이『방위동맹』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보통사람들은 아메리카의 육, 해, 공군이 아메리카의 국경선에서 수천마일 떨어진 조선땅에 어린것들과 늙은이 머리위에 폭탄을 투하하고 함포사격을 가하는것이『방위』가 아니라 공격이라는것을 알고있다

공격을 방위로 뒤바꾸는 몰렴치를 감행하면서—

월가의 시궁창 전덕지로 오래두고 잡견들을 양육해온게 무엇때문이였던가?

리승만 장개석 바오다이 아데나우어, —

월 스트리트 트럼본은『아메리카 방위』장단에 맞추라고 라발을 분다

『당신의 돈주머니를 위하여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바치오』

월스트리트 주방의 기름덩이, 빵부스러기를 입가에 무친 잡견들이 상전의 속마음을 알아채리고 이렇게 짖어대고 있다

아들을 빼앗긴 어머니, 남편을 빼앗긴아내, 아버지를 빼앗긴 고아의 슬픔이 전쟁을 미워하는 사무친 감정으로『평화를!』절규하고 있거늘 총장을 뜯고 자란 미친개들은 충혈된 눈으로 피의 세계를 갈망한다

깨진 라발의 발성이 도레미화를 구별할수 없는것과같이 리승만의 낡아 깨여진 라발은 음향의 수라장을 이루고 있다

「전생애를 걸어 전쟁과 운명을 가치 할 결심을 한 미제와 리승만이 입을 열면『북방의 위협』,『전쟁』이야기 던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어니와 오늘 조선및 인도지나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제네바회의장에서도 전쟁광들은 전쟁을 요구하고있다

온누리에 충일하는 아침햇발과도 같은 평화의 광망을 가리워 보려는 전쟁미치광이들의 이 모든 시도는 반드시 파탄되고야 말것이다

광명이 암흑을 이겨내는것 처럼 평화는 전쟁을 이겨내고야 말것이다

월가의 강압정책

리영춘 그림

— 이자식들이 달아난다 가면 어데로 갈테야!

「괴뢰군 증강계획」

리승만 괴뢰군을 무제한으로『증강시킬 사명』을 가진 밴프리트는 5월 6일 서울에 나타났다 그는 리승만에게 아이젠 하워의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괴뢰군의『배강계획』을 추진 시키기위하여『활동』을 개시하였다 밴프리트는 지금『군사정세를 검토』하며 더 많이 남조선 청년을 대포밥으로 징모할데 대하여 리승만을 추동하고 있다

박승히 그림

— 꼭 꼭 구멍마다 잘 막아라!

— 네! 네! 그래도 원체 낡아서 자꾸 만 깨집니다

북진 준비하기위해 리승만 각하 당신군대 많이 증강하시요

네! 네!

내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지시로 당신 몹겠소

원광수 그림

— 개자식들! 네놈들의 흉모가 달성될줄 아느냐!

소위「농지개혁」

박승히 그림

리승만 매국도당들은1950년3월25일 소위「농지개혁법」이란 기만적 략탈법령 밑에 수확이 없는 척박한 땅을「분여」하였다 그래놓고는「상환미」로서 전수확의50% 이상을 지주들의 토지 대금으로 회수하며 전생산고의 15%의「토지수득세」를 비롯한 280종의 가렴잡세를 땅을 가졌다는 명목으로 농민들에게서 강탈 하고있다

국제긴장 상태의 완화와 극동에서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 하여야할 사명을 띠고 제네바회의는 개막된지 한 달이 넘는다

아세아와 구라파의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회의의 진행을 바라보고 있다

사람들은 이 회의를 통하여 조선문제에 관한 두개의 상반되는 로선을 더욱 명백히 알았다

남일 외무상의 연설과 제안이 덜레스에게 얼마나 예상외의 것이 였으며 또 심중한 타격이 였든지—이날 회의에서 연설하기로되여 있던 덜레스가 의장 므·므·몰로또브 에게 그의 연설을 다음날로 연기해줄것을 요청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회의에 참가한 사람들뿐만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웃음꺼리로 된것은 아이젠하워나 덜레스가 씹다 남은 껌을 되씹고있는 남조선 괴뢰정부의『대표』변영태의 발언이다

『3천만 조선사람과 하나님을 애호하는 사람을 대표하였다』는 변영태는 기국의 침략 정책을 옹호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비방 인민중국에대한 중상적 독설을 퍼거퍼 퍼부으며 북조선은 황폐 세계이며 남조선은『광명』한 세계인것 처럼 허위적인 악선전을 하고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미제 강점하의『자유로운』남조선은 생지옥을 이루고 있으며 나어린 아동들에게 있어서도 죽엄의 땅으로 되고 있다

남조선은 오늘 아동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의 하나로 되고있다

부산시에서만도 매년 탄생하는 어린이들의 50%는『모성의 영양부족과 질병으로인하여』탄생한 첫해에 사망한다 (부산일보) 놈들의 축소된 자료에 의하더래도 남조선 아동들의 처지는 동물의 처지보다 나쁘며 그들은 헐벗음과 굶주림에 쫄리면서 천정도 없는 빈민굴이 아니면 가두에서 거처기도 없이 방황하고 있다

남조선의 실업로동자, 류랑농민, 몰락당한 도시 소시민 및 파산당한 중소 기업가의 수는 괴뢰『정부』의 축소된 통계에 의하드래도 전체 인구의 6할에 달하는데 그들은 연명하기 위한 호구지책에 급급한 나머지 사랑하는 자제 아동들을 돌볼 여지는 전혀 없는것이다 (신태양) 미제 침략자들은 그들이 랍치해간 우리측 실향사민들의 비참한생활에 대하여 미국의 반동 출판물들까지도 부득불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군 사령부의 기관지『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스』3월 18일부에는 미국 아이·엔·에스 통신 기자의 현지보도를 게재하였는바 동기자는 수원 교외의 파괴된 병원 구석들에 의지하여 지여 놓은 토굴에 살고있는 5천명의 실향사민 아동들의 처참한 생활에 대하여『누더기 옷을 입은 더러운 아이들이 개미모양으로 창문없는 건물주위에서 욱실거리고 있다』고 전하면서 계속하여『그들은 오늘 이 누추하고 어지러운 토굴에서 조차도 쫓겨나 방황하게 되였다 남조선 군대는 그자신이 이 파괴된 병원을 사용할것으로 결정하고 그저 간단하게 이 5천명의 피난민들을 나가라고 명령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자는 계속하여『이사람들의 곤궁한 처지는 남조선에 있는 약 3백만 피난민들의 문제를 그대로 제기하는것』이라고 쓰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을 우마와 같이 무지에 얽매여 두려는 미제와 리승만 매국역도들의 몽매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아동들은 향학의욕에 불타면서도 배움의길을 잃고 있다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은 그들의 파괴에서 몇개 남지않은 학교들마저 학생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의 병사와 군용창고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만도 19개의 남녀중등학교와 14개의 국민학교가 미군의 병사및 창고로 강제 점령되고있다 남조선 신문들의 축소된 보도에 의하드래도 남조선에는 7세부터 14세까지의 61만명에 달하는 미취학 아동들이 배움의길을 잃고 거리에서 방황하고있으며 절식과 부랑을 일 삼고 있다 (국도신문) 면목상 문을 열어놓은 몇개되지않는 학교들은 특권계급들의 영리본위를 위한 독점적 모리장으로 되였으며 지주 자본가들의 자제들만이 공부하고 있다

리승만 매국역도들은 미제의 지시하에 금년도 예산에서『교육비』를 대량 삭감하였다 얼마전 괴뢰국회에서 통과된 1954년도 『예산안』은 총액2 4조 2천 3백여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였는데 그중 76,9 %가 직접적 군사비로 돌려져있는 반면에 교육, 사회부문에는 단 3%를 돌리고 있는바 이것은 이부문 관리들의 인건비에 불과하다 이래 놓고는『자체해결』이라는 구실밑에 많은 금품을 아동들에게서 뜯어내고 있다 과학과 지식을 배우기를 열망하여『학교를달라!』고 외치는 남조선 아동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가고있다 서울수송국민학교 아동들은 미군과 괴뢰군은 학교를 내여놓고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시위를 단행하였다 천진란만한 아동들의 정당한 이 요구를 유린하면서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은 배움터를 달라고 울면서 외치는 6백여명의 아동들에게 군대까지 동원시켜 발포한 방법으로 교내에서 몰아냈다 (조선일보) 미제국주의자들의 강점하에 있는 남조선에서의 아동들의 비참한 생활은 그의편모만 보드래도 바로 이러하다 그러나 조국애에 불타는 남조선 아동들과 인민들은 자유로운 배움의길과 행복한 생활을 빼앗은 미제와 리승만역도들을 무한히 증오 저주하며 공화국 북반부 아동들이 조국의 따뜻한 품안에서 마음껏 누리고있는 민주학원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동경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독립이 하루 속히 이룩되기를 일일천추와 같이 갈망하고 있다 (심 명 숙)

남조선 에서

로흉 리승만은 미제의 이미 깨여진 바람개비 위에서 월가의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망탕 돌아가고 있다

조선전쟁에서 파산을 당하고 정전협정에 조인을하게 되자 그월가에서『정전기간을 전쟁준비 기간으로』라는 바람이 불자 리승만은 전쟁재발에 발광 하였다

우리측 포로를 강제억류하여 괴뢰국방군에 강압입대 시키였고 남조선의 청장년들을 모조리 군대에 강제 징모하느라고 발광 하여왔다

그러나 매국노의 흉계는 실패를 거듭하였을뿐이다

쏘련의 시종일관한 평화에 의하여 베르린 4렬강 외상회의는 일정한 합의를 보게 되였다

평화를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로흉 리승만은 제네바회의 소집에 관한 소식을 들게되자 더욱 당황 망조하였다

로흉 리승만을 조종하는 미제는 자기들의 추악한 침략계획을 계속 추구하였다

워싱톤의 훈령을 가지고 남조선에 나타난 헐은 리승만이『북진전쟁』을 재개하는 경우에 미국침략군대는 리승만괴뢰군대와 공동작전할것을 약속하고『북진』발광증을 더욱 격화 시켰다

더우기 제네바 회의를 방해하기 위하여 서로 월가 흉모바람을 더욱 강하게불어대는통에 바람개비는 한층 더 박차를 가하여 돌아갔다

『회담을 통하여 조선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친우들이 깨닫게될것을 희망한다』고 떠벌리면서『만일 제네바회의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미국은 조선에서『무익』한 회담의 방법을 버리고『다른 방법』을 사용할것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더우기 미국정부는『미국과 남조선은 회의가 만약 90일 이내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회의를 무효로 인정하고 공동 퇴장할것이다』라고 바람을 불어대자 이에 더욱『용기』를 얻은 리승만은 미친개 모양으로 짖어대기를『제네바회의가 공산주의 전쟁 준비기간을 보장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고함을 쳤다

그러나 어찌하랴— 이미 크게 믿고 있던『유·엔군』대포밥들이 만신창이된 오합지중으로 되고 말았고 제네바에서는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위한 남일외무상의 정당한 방안이 나왔고 이방안은 쏘련을 위시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전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의 절대지지를 받고있으니 워싱톤에서는 회오리 바람이 이러 났다 이 바람은 리승만의 눈알이 핑핑 돌게한다

『제네바회의 실패를 단정하고 전쟁으로 몰아 갈때가 왔다』하고 떠버릴 리승만의『북진』발광증은 더욱 심해가고 있다

더우기 최근 서울에는 월가의 호전분자들이 들락 날락하며 아이젠하워의 지시를 전달하여 오래전부터의 계획이 였던 리승만 괴뢰군의 무제한 증강을 위하여 지난 5월6일에는 밴프리트가 서울에 나타나 륙군의『배장계획』을 추진하며『군사정세를 검토』하고 있다

5월5일에는 미극동 사령부 군수참모 코푸닝이 왔으며 5월7일에는 미 예비군사령관 리챠드가 역시 아이젠하워의『특별서한』을 가지고 왔는바 그 모두가 괴뢰군『증장』계획과 관련된 임무를 가졌다는것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괴뢰군『련합 참모본부 총장』리형근은 미 제5공군 사령관 앤더슨의 호출을 받아 5월7일 서울을 떠났다

이 판에서 리승만은 괴뢰군을『본격적으로 증강시킬 단계에 이르렀다』고 떠버리고 있으며 괴뢰정부『공보처장』갈홍기는 상전과 그의『동맹자』들에게 향하여『제네바회의를 급속히 중단한 후 북진을 원조하라』고 떠들어 대고 있다

그러나『향수병』과 염전사상에 걸려 나자빠진 자기 군대와 탈주병과 자상중에 걸린 괴뢰군대들의 수습할 수 없는 혼돈상태를 어찌하랴

어리석기 짝이 없는 리승만은 미국의 위험한 바람개비 위에 올라서서 미국이 불어주는 대로『북으로!』『북으로!』하고 짖어 대고 있다

아무리『북으로!』『북으로!』라고 발광하여도 오늘의 모든 정세는 그들의 흉모가『성공』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아세아에서 전쟁을 종식 시키며 평화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제네바 회의를 성공시키려는 전세계 인민의 지망은 날로 증대 되고 있다

조선인민은 전세계 평화애호 인민들과 더불어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 역적들의 흉모를 걸음 마다 분쇄할 것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 굳은 결의에 충만 되여 있다

(지 ~철)

백인균 그림

미군이 강점하고있는 교사를 즉시 반환하라! 학교의 모리장화를 반대한다. 등 9개 조항의 요구를 내걸고 지난4월18일부터 남조선에서 리승만 도당들의 략탈정책과 노예교육을 반대하여 학생들이 동맹휴학으로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김형준그림

미제 지시에의하여 리승만 역도들이 많은 문화유산을 팔아먹었다 지금에 와서는 한글마저 없애 버릴려고 소위 한글「개혁안」을 내놓고 있이며 퇴폐적인 미국식「문화」를 강요하고 있다

장진광 그림

책임주필 장진광
발행소 활살 (시사만화잡지) 사
인쇄소 국립종합인쇄소
인쇄 1954. 6.20.
발행 1954. 6.25.
ㄱ… 50333 (정가90원)

RETURN TO
THE LIBRARY OF CONGRESS
DIVISION OF ORIENTALIA